



국립과천과학관 자연사팀 이강환 박사

KASI : 근무하고 계신 과학관과 말고 계신 업무에 대해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강환 : 국립과천과학관 자연사팀 연구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학관에서 유일한 천문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천체투영관과 천체관측소 운영 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각종 천문행사 등 천문과 관련된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KASI : 카가야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가야 씨와 전시회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강환 : 지난 7월 18일부터 특별전시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카가야 씨는 일본의 유명한 컴퓨터 아티스트입니다. 신화 속 환상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담아 놓은 일러스트에서부터 우주의 여러 천체와 현상을 세밀하게 묘사한 그림까지,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멋진 작품을 그리는 세계적인 일러스트레이터죠. '2009 세계 천문의 해'를 기념하고자 저희 과학관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주최하고, IYA2009 한국조직위원회 후원으로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KASI : 천문학을 전공하셨는데, 천문학이라는 학문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요?

이강환 : 어릴 때부터 과학을 좋아했습니다. 여러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천문학은 과학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많은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KASI : 천문학 중에서 어떤 분야의 연구를 하셨는지요? 또한, 관심 있는 천문 연구 분야는 무엇인가요?

이강환 : 석사과정까지는 서울대 이시우 교수님의 지도로 구상성단 관측을 전공했습니다. 박사과정에서는 이형목 교수님의 지도로 구상성단 역학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에는 관측과 시뮬레이션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조금 특이한 경우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구상성단 역학에 관심이 많지만, 과학관에서 근무하는 특성상 어느 특정 분야만이 아니라 천문학 전반에 대해 알아야 하기에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원래부터 우주론 등의 분야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KASI : 특별히 어렸을 적에도 별과 우주에 관심이 있었나요?

이강환 : 글썄요. 남들보다 별과 우주에 특별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자란 곳이 시골이다 보니 많은

별을 볼 수 있었고, 그런 환경으로 인해 별에 좀 더 친숙해져 있었습니다.

KASI : 과학관에서 근무하면 천문학 관련해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은 있으신지요? 혹은 추후에라도 연구 활동을 하고 싶은 생각은 있으신가요?

이강환 : 현재로서는 사실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는 항상 저를 천문학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주제를 찾기 위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KASI : 과학관에서 천문지도자 연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천문 활동과 관련해, 과학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 했으면 하는 일이 있으시다면?

이강환 :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와 세계 천문의 해 기념 사업을 여러 건 함께 진행했고, 앞으로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려면 과학관에서는 아마추어 분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천문 활동에 대해서도 과학관에서는 최대한 지원하고 협조할 계획입니다.

KASI : 과학관에 근무하면 휴일에 일하고 월요일에 쉬는 데요. 이런 생활에 남다른 애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강환 :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이죠. 남들 다 쉴 때 일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할 때 저는 쉴 수 있습니다. 특별한 만큼 불편한 점도 있지만 평일에 쉬는 것도 나름대로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KASI : 천문학이나 과학관 일 외에 관심사가 있으시다면?

이강환 :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서 대학원 때 학교 내의 여러 체육대회에 주동적으로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체육특기생'이었습니다. 천문학과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사회인 야구단도 조직해서 활동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요. 과학관 근무를 시작하면서 결혼생활

을 함께 시작했고, 아빠가 되면서부터는 사실 취미활동은 거의 못하고 있죠.

KASI :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강환 : 다른 곳에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과학관에서는 천문학이 인기도 많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도에 비해서 과학관 조직에서의 비중이나 인력은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의 천문 관련 시설은 세계 최고 수준이니만큼 앞으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과학관 천문팀을 만드는 것이 희망입니다.

KASI : 지금까지의 질의와 상관없이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강환 : 천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저희가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나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과학관 내부에서도 아주 평이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세계 천문의 해 행사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천문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도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관심이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천문학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서 대중의 관심을 지속시킬 수 있는 조직과 방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천문학은 대중의 관심과 지지가 있어야만 발전할 수 있는 학문이니깐요.

KASI : 진심어린 답변, 고맙습니다.

